



조건 제 8050 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6년 3월 24일 화요일 (음력 2월 6일)

강기정-신정훈, 단일화 '꿈틀'...불 붙는 통합시장 경선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연대 변수 부상

민형배-주철현, 김영록-이병훈 등 연대 관측 확산
결선 가능성 속 중위권 전략 재편...판세 영향 촉각



강기정 신정훈

다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본경선이 다자 경쟁 구도 속에서 결선 투표 가능성이 커지면서, 후보 간 연대 여부가 판세를 좌우할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과반 득표가 쉽지 않은 구조에서 중위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단일화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는 상황이다.

2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강기정·신정훈 후보는 이날 오후 전주교대교구에서 유권진 대교구를 공동 예방한 뒤, 본경선 과정에서의 단일화와 연대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관련기사 2·7·8·19면>

강 후보는 "신 후보와는 오랜 시간 가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며 "살아온 과정이나 통합특별시장 운영에 대한 생각에도 일부 차이는 있지만, 다른 후보들과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치와 정책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신 후보 역시 연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경쟁을 통해 더 큰 가치를 만들 수도 있고, 통합을 통해 더 큰 결과

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며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지역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더 큰 대의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움직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후보는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도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필요하다면 결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 후보는 82학번 동기로 각각 전남대와 고려대에서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인연이 있다. 민주화운동 경험과 가톨릭 신자라는 공통점. 이후 정치와 행정 현장에서 이어온 협력 관계까지 더해지며 정치적 결합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다른 후보들 간 연대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된다. 광주 기반의 민형배 의원과 전남 동부권 주자인 주철현 후보 간 결합 여부 역시 정치권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김영록 후보를 둘러싼 연대 가능성도 변수로 거론된다. 경선 중도 사퇴한 이병훈 후보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과 관계가 주목받는 가운데, 최근 김 후보가 선거

베이스캠프를 이 부위원장이 사용하던 건물로 옮긴 점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결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하는 시각이 나온다.

이처럼 후보 간 다양한 연결 고리가 부각되면서 이번 경선은 단순한 다자 경쟁을 넘어 연대 여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선 방식도 이러한 흐름에 힘을 실는다. 이번 본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 경선으로 치러진다. 5명이 경쟁하는 구도에서 특정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전남 서부권을 시작으로 28일 동부권, 29일 광주권에서 정책배심원 토론회를 진행한 뒤, 4월 3일부터 5일까지 본경선 투표를 실시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두 후보가 12일부터 14일까지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뷰폴리에서 광주 전경 감상하세요” 23일 오후 광주 동구 서석동 광주영상복합문화관 옥상에 설치된 ‘뷰폴리(View Folly)’를 찾는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뷰폴리’는 광주폴리Ⅲ의 대표 작품으로 건축가 문훈과 리얼리티즈 유나이티드, 팀 에들러 & 안 에들러가 협업해 제작한 도심 속 전망과 휴식 기능을 결합한 전망대형 건축물로 시민들에게 일상 공간에서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도시 재생형 공공건축물이다. 그동안 ‘뷰폴리’는 안전한 운영을 위한 인력배치가 어려워 시민 출입이 제한됐으나 광주 동구가 4개월간 운영 인력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한시적 개방 운영한다. 개방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골목형상점가 715곳 확대...경기회복 마중물



<1>프롤로그

고물가와 소비 위축, 온라인 중심 소비 확산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광주·전남 골목상권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지역별로 추진된 골목형상점가 확대와 맞춤형 지원 정책이 현장에 변화를 만들어내며, 침체된 골목경제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등 각 지자체의 실험적 정책들이 실제 소비를 유도하고 상인들의 체감도를 높이며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골목상권을 살리자 시즌2’ 기획시리즈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주목한다. 광주 자치구와 전남 자치단체들이 만들어낸 정책 성과를 짚어본다.

광주 648곳·전남 67곳 등 올 2월 기준 10배 증가
전국 42% 차지...서울·경기 수도권의 1.5배 많아

광주·전남 지역의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올해 715곳으로 대폭 확대되며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23일 광주시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광주지역 골목형상점가는 총 648곳으로, 동구 73곳·서구 126곳·남구 85곳·북구 225곳·광산구 139곳이 운영 중이다. 전남지역은 17개 시·군에 67곳이 지정돼 있으며, 목포 14곳, 나주 13곳, 해남 7곳, 담양·신안 각 5곳, 광양·강진 각 4곳, 여수·무안 각 3곳 등으로 분포돼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 1705곳 가운데 약 42%에 해당하며, 수도권 전체 상점가 수보다 많은 규모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 상인들의 공동 노력이 수차례 나타났다는 평가다.

자치구별 추진 전략도 눈에 띈다. 동구는 현상 중심 행정을 통해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제도를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역화폐 ‘동구랑페이’ 가맹 확대를 병행해 매출 증대 효과를 이끌어 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완료를 기념하는 선포식을 열고 정책 성과를 공유했다. <2면서 계속>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유원산업기술·협성히스코·동진기업 등 광주전남 5개 기업

기술력·성장성 인정 ‘유망 중소기업’ 선정

광주·전남지역 5개 중소기업이 국가대표 스케일업 프로그램에 선정되면서 지역 산업의 ‘도약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견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비온사이노베이터, 유원산업기술, 협성히스코, 동진기업, 티디엠 등 광주·전남지역 총 5개 중소기업 등 전국 100개사를 ‘제2기 도약 프로그램’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전남에서 선정된 5개 기업은 지역 주력 산업과 밀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쌓아온 기업들이다. 나주시에 위치한 비온사이노베이터는 에너지 및 신소재 기반 기술 기업으로, 기

능성 소재와 관련한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광양시에 본사를 둔 유원산업기술은 산업용 설비와 기계 제작 분야 기업으로, 플랜트 및 생산설비 기술력을 강점으로 한다. 순천시에 자리한 협성히스코는 금속 가공 및 철강 관련 부품 제조 기업으로, 산업용 소재·부품 공급망에서 역할을 해온 업체다. 광주에 소재한 동진기업은 자동차 및 기계부품 제조 분야 기업으로 지역 제조업 기반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로 꼽히며, 티디엠은 정밀부품 및 장비 제조 분야에서 기술력을 축적해온 기업이다.

이들 기업들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신사업 확대와 기술 고도화를 통한 중견기업 도약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도약 프로그램’은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이 신사업 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년간 집중 지원하는 정부 핵심 정책이다. 선정 기업에는 전략 수립부터 기술 자문, 사업화 비용 지원, 투자 및 해외 진출 연계까지 전 주기 지원이 제공된다. 이번 선정을 통해 광주·전남 기업들이 본격적인 성장 계도로 오르면서 지역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 선정된 기업들은 평균 업력 22년, 평균 매출 466억원 규모로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다. 최근 3년간 매출과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성장 기반도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2026년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

개강식 축하 콘서트

일 자 | 2026년 3월 26일(목) 오후 6시

장 소 |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 5층 대연회장 (구 라마다상무호텔)

일 정 | 오후 6:00 저녁식사(17층 파리뷰)
오후 7:00 개강 축하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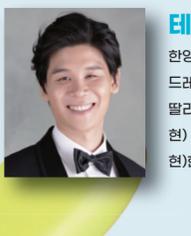
문의 | 광남일보 사업국 (T.062-370-7090 / 010-3394-9398)



바리톤 김동규
학력 밀라노베르디 국립음악원
데뷔 1991 오페라 토스카
수상 1997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음악부문
1991년 베르디 국제 성악콩쿠르1위
경력 이탈리아 라스칼라극장 주역가수



바리톤 신홍규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 졸업
슈베르트콩쿨 입상
다수 오페라 주역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홍보대사
현)가천대학교 외래교수



테너 하세훈
한양대학교 성악과 학사 졸업
드래스덴 성악과 석사 졸업
말리아비니 국제 콩쿨 2등 및 청중상
현)한양대학교 성악과 외래교수
현)한세대학교 성악과 외래교수

